

형지I&C, 150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 ▶ BW조달 자금 통해 글로벌 온라인 사업 강화
- ▶ 아마존 전문 조직 구축, 미국 특화 제품 개발 등 현지화 전략 전개

<2021-04-26> 패션종합기업 형지I&C(011080, 대표이사 최혜원)가 1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며 오프라인 강자에서 온라인 인프라 강화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화에 한층 더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형지I&C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BW 발행을 결의했다. 공모 분리형으로 발행되며 일반공모방식을 택했다.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다.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은 6월 중 상장될 예정이다.

오프라인이 강했던 형지I&C는 이번 BW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온라인 및 글로벌 사업 투자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형지I&C는 2019년 온라인 분야 전문 전담 온라인사업부를 신설했으며 2020년에는 글로벌 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업부가 출범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온라인 단독 상품 출시, Live Commerce 상품확대, 온라인 입점몰 지속 확대를 통해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사몰 오픈을 통해 B2C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형지I&C는 프리미엄 예작 셔츠의 판매 증가 등 아마존 일본에서의 성공에 이어 아마존 미국에도 지난 3월 성공적으로 입성했다. 앞으로 글로벌 판매를 위한 조직 역량 강화 차원에서 아마존 전문 조직을 구축하고 아마존 일본 히트 제품을 우선 판매해 미국 시장 내 브랜드 경쟁력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특화 제품 개발 등 미국 시장 현지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형지I&C 관계자는 “형지I&C는 온라인 인프라의 확고한 구축과 일본,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번 BW 발행을 결정하게 됐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패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